

빈곤이 아동의 우울·불안에 미친 영향 : 빈곤의 기간 및 시기, 정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김 광 혁*

초 록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 초4패널 자료(2838사례)를 활용하여 빈곤이 아동의 우울불안에 미친 영향과 빈곤의 영향이 기간과 시간,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은 아동의 우울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 기간과 시점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장기간에 걸쳐 연속적인 빈곤을 경험할수록, 보다 초기에 빈곤을 경험할수록, 그리고 빈곤의 정도가 심할수록 우울불안에 대한 빈곤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빈곤 가족 아동의 우울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이러한 지원은 장기적이고, 극심한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가족에 집중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 빈곤, 아동, 우울불안, 빈곤 기간, 빈곤 시점, 빈곤 정도

* 전주대 사회복지전공 조교수

I. 문제제기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절대적 빈곤의 증가와 빈곤의 고착화, 더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빈곤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절대빈곤의 시대를 갖 벗어나 빈곤의 아픔을 잊어가던 시기에 외환위기는 과거와는 다소 다른 양상의 빈곤을 경험하게 하였다. 즉 갑작스런 대량 실업으로 인한 빈곤층의 증가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불안정으로 인한 빈곤의 고착화, 그리고 소득의 양극화를 넘어선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또한 경제적 박탈의 고착화는 단순히 한 세대 내에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빈곤의 대물림 현상 역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8년에 다시 찾아온 외환위기는 빈곤문제의 심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듯 빈곤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여러 학문분야에서 빈곤이 다양한 인간생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구인회 외, 2006: 김광혁, 2006a; 2008a; 2008b).

빈곤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라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나타나는 빈곤의 문제는 경제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생활 전반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아동기에 경험하는 빈곤은 다른 인간 발달시기에 비해 그 해악이 상대적으로 더 커서 정서적인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데 제한을 받게 되며, 잠재적인 능력의 발달을 저하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아동기에 경험하는 빈곤의 영향에 대한 서구의 연구들은 빈곤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이나 인지발달의 저하, 신체적 발달 등 전체적인 아동기 발달의 지체를 가져오고, 성적이나 학력성취의 저하, 그리고 여러 행동 및 부적응의 문제를 유발시키며, 더 나아가 성인기의 노동능력이나 결혼생활 등 사회경제적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Duncan, Brooks-Gun and Klebanov, 1994; Conger, Conger and Elder, 1997; McLoyd, 1998; Bradley and Corwyn, 2002). 최근에는 단순한 빈곤 여부에 따른 차이나 영향을 넘어 빈곤을 경험하는 기간이나 시기와 같은 빈곤의 시간적인 차원을 고려한 분석과 아동발달에 대한 가족소득의 비선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 분야 연구자들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빈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주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Conger et al, 1997; Duncan et al, 1998).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인 빈곤의 양상에 대한 연구의 결과들은 빈곤아동에 대한 이해

를 높여, 사회적 개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광혁, 2006a; 2008a; 2008b).

우리나라 역시, 외환위기 이후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국내의 이 분야 연구들은 아동의 사회·정서적인 발달에 대한 빈곤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인지발달이나 학업성취도, 학력성취에 대한 연구가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몇몇 학업성취도나 학력성취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횡단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빈곤의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빈곤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동의 우울·불안이나 공격성, 비행, 자아존중감과 같은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대한 연구들은 종단적인 자료를 활용한 빈곤의 시간적 차원이나 가족소득의 비선형적인 영향,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나 매우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¹⁾. 이로 인해, 빈곤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분야는 여전히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에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학업성취도나 학력성취와 같이 아동의 향후 인적자본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아동의 발달 지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사회·정서적 발달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나 최근에는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분야 역시, 아동의 삶의 질이나 사회생활, 결혼생활, 자녀 양육과 같은 향후 성인기의 삶의 질까지 그 영향이 이어지고, 학업성취도나 학력성취 향상의 매개 고리의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인적자본의 새로운 형태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이봉주, 2006; 김광혁, 2006a; 2008a; 2008b).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 분야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발달에 대한 전문적인 패널조사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3개년 동안 조사한 한국청소년패널 초4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차원의 빈곤이 아동의 사회·정

1)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인 조사자료의 축적으로 시간적 차원을 고려한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김광혁(2006; 2008)의 연구에서는 빈곤기간이나 시점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대한 빈곤의 영향이 달라진다고 보고한바 있다. 그러나 빈곤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빈곤의 기간이나 시점 등이 고려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종단자료를 활용한 구인회 외(2009)의 연구에서는 특정 년도의 빈곤 여부에 따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이 종단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를 비교하여 제시한 바 있다.

서적 발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빈곤의 기간이나 시점 등에 따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차이를 보이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여러 사회·정서적 발달 분야 중 우울·불안에 관심을 갖는다. 아동의 우울·불안은 대표적인 아동의 내재화된 행동문제의 하나로서 아동이 경험하고 있는 내재화 문제 중에서 가장 주요한 증상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 역시 매우 높다(Asarnow and Carlson, 1985; Bhatia and Bhatia, 2007; 오경자, 이혜련, 임양화, 1991). 또한 우울·불안은 건전한 자아의식을 갖지 못하여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하며, 주어진 시기에 적합한 학습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을 감소시키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 자기 인식을 키우는 등 다른 내재화 또는 외현화된 행동문제와 결합되어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Kazdin, French, Unis, Dawson, 1983; 최영희, 박영애, 박인전, 2002, 강예리, 안창일, 2004). 더 나아가 아동기의 우울·불안은 성인기의 만성적 우울증 유발의 큰 위험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실업이나 빈곤과 같은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지위와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Aneshensel and Sucoff, 1996; Aronen and Soininen, 2000). 이러한 아동기 우울·불안이 더욱 큰 문제로 인식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동이 우울·불안의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문제와 결합되어 심화된 상태에서 인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Bhatia and Bhatia, 2007; 김연희, 김선숙, 2008).

따라서 이러한 아동 발달의 큰 문제의 하나인 우울·불안에 대한 발생 원인을 밝혀내고, 발생 위험집단을 찾아내어 예방적 개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구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아동전문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을 경험한 기간(연속 또는 불연속)이나 시기(초기 또는 후기), 그리고 정도(소득 수준) 등 다양한 빈곤의 차원에 따라 아동의 우울·불안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그 영향은 어떠한 변수들에 의해 전해지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빈곤아동의 우울·불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자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빈곤의 시간적 차원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빈곤(1-3차년)이 우울·불안(3차년)에 미친 영향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분석모형에 1차년도의 우울·불안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보다 분명한 빈곤과 우울·불안의 인과적 관계 입증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빈곤은 아동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가?
 - 1-1. 빈곤이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가?
 - 1-2. 소득이 우울·불안에 미친 영향은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는가?
2. 빈곤이 우울·불안에 미친 영향은 빈곤의 기간 및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가?
3. 우울·불안의 초기치를 통제한 후에도 우울·불안에 대한 빈곤의 영향은 나타나는가?
4. 빈곤은 부모·자녀 애착, 부모의 생활감동, 가정폭력 등 매개변수를 통해 아동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논의

아동의 발달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빈곤한 가정의 아동은 빈곤하지 않은 가정의 아동에 비해 신체, 인지, 사회·정서적 발달의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비행이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빈곤 또는 연속적인 빈곤을 경험한 아동은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되어 여러 분야의 발달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빈곤을 초기 아동기 또는 초기 학령기에 경험할수록 그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한다고 보고한다. 이렇듯 선행 연구들은 비교적 일관되게 빈곤이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Duncan, Brooks-Gun and Klebanov, 1994; Brooks-Gun and Duncan, 1997; McLoyd, 1998; Bradley and Corwyn, 2002). 이러한 아동발달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가족과정모델(family process model)이나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 생태체계이론 등에 기초하고 있다. 먼저, 가족과정모델에서는 빈곤이나 급격한 소득감소로 인한 가족관계 및 가족기능의 저하가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가족과정모델은 가족빈곤이 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키며, 아동에 대한 양육 행동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쳐 아동발달의 저하를 가져온다고 설명한다(Huston, McLoyd and Coll, 1994; Conger and Donnellan, 2007; Gershoff, Aber, Raver and Lennon, 2007). 이러한 가족과정모델은 빈곤아동의 여러

영역에 걸친 발달 저하를 설명하고 있지만 특히, 빈곤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의 저하를 설명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또한 인적자본이론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금전적, 시간적 투자에 따라 아동의 발달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빈곤한 부모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에 대한 인지적 자극이나 다양한 교양 및 취미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적 지원,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등에 대한 금전적, 시간적 투자보다는 의식주와 같은 일상생활에 대한 가치를 보다 크게 둘 수밖에 없어 빈곤하지 않은 가정의 아동에 비해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한다(Becker, 1981; Becker and Tomes, 1986). 이러한 인적자본이론은 빈곤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저하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주로 아동의 인지발달이나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는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생태체계이론은 아동을 둘러싼 다차원의 체계들 간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아동발달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이론적 체계로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요소들이 아동발달과 관련되어 존재하며, 이러한 요소들의 복합적 상호작용 메커니즘 속에서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생태체계이론은 빈곤의 영향 역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생태 체계적 접근은 가정의 경제적 박탈과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된 부모의 심리적 변화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부모의 무기력, 음주, 생활의 불안정 등이 가정의 정서적 기능, 또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 및 교육적 지원이나 관여 등과 같은 양육행동의 변화를 야기하여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한다(Bronfenbrenner, 1986; Eamon, 2002). 이러한 이론들은 대부분 빈곤이 가족관계나 상호작용, 아동에 대한 부모의 다차원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여 자연스레 빈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들의 이론적 기초 역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우울·불안과 같은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가족과정모델에 근거하여 빈곤의 영향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스트레스, 부모가 느끼는 경제적 박탈감 정도, 부부갈등이나 부모-자녀 관계 등 가족관계, 양육태도 등이 빈곤의 영향을 아동에게 전달하는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아동발달에 대한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특히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분야의 경우, 다소 상반될 수 있는 결과들이 보고되기도 한다. 일관되게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이 보고되고 있는 학업성취 분야와 달리, 사회·정서적

발달의 경우, 빈곤의 영향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거나 빈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사회정서 발달의 구체적 지표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진다는 보고도 있다(김광혁, 2006a; 2008a; 2008b).

예를 들어, 아동의 우울·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의 경우, 장기적인 연속빈곤의 영향을 받는 반면, 공격성이나 비행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의 경우, 단기적인 일시 빈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빈곤의 기간을 비빈곤과 반복적 빈곤 및 지속적 빈곤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Duncan, Brooks-Gunn, and Klebanov(1994)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빈곤을 경험한 아동일수록, 비빈곤 아동보다 내재화, 외현화 행동문제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반면, MaLeod and Shanahan(1993)은 장기적인 연속 빈곤을 경험한 아동일수록 외현화 행동문제보다는 내재화 문제가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즉, 장기빈곤을 경험한 아동은 비빈곤 아동에 비해 의존적이고, 우울하며, 분노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Pagani, Boulerice and Tremblay(1997) 역시, 연속적인 빈곤을 경험한 아동의 경우, 분노와 싸움과 같은 행동문제가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Pagani et al (1997)의 연구에서는 내재화된 행동문제의 경우, 가족빈곤이 가족구조와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반면, 외현화된 행동문제인 싸우는 행동문제의 경우, 가족구조와 관계없이 빈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Korenman, Miller and Sjaastad(1995)는 장기빈곤과 단기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비빈곤 아동보다 행동장애가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장기적인 연속 빈곤에 비해 단기적이고, 비지속적인 빈곤에 처한 아동의 외현화된 행동문제가 더 크게 나타났음을 보고했다. 반면, Hauser and Sweeney(1997)은 학업성취나 직업적 성취와 달리, 우울은 아동기의 빈곤이나 가족소득 수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했으며, Axinn, Duncan and Thornton(1997) 역시, 교육 년 수와 달리, 아동의 대표적인 사회·정서적 발달 지표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은 연속빈곤과 같은 빈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이 밖에도 Elder, Nguyen and Caspi(1985), Conger, Conger, and Elder(1997), Duncan and Brooks-Gunn(1997), Linver, Brooks-Gunn and Kohen(2002), Yeung, Linver and Brooks-Gunn(2002), Conger and Donnellan(2007), Gershoff, Aber, Raver and Lennon(2007) 등은 이러한 아동의 발달에 대한 빈곤의 영향은 가족관계나 부모의 양육행동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김광혁, 2006a; 2008a; 2008b).

국내에서도 최근 빈곤과 사회·정서적 아동발달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빈곤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윤혜미(2005)의 연구에서는 빈곤 관련 스트레스가 아동의 공격성이나 비행 등 외현화 문제와 위축이나 우울·불안 등의 내재화 행동문제를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욕구소득비(income-to-needs ratio)에 의해 산출한 빈곤측정에 기초하여 빈곤이 아동의 우울·불안과 비행, 자존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박현선(2008)의 연구에서는 빈곤한 가족의 아동이 빈곤하지 않은 가족의 아동에 비해 우울·불안과 비행정도가 높고, 자존감은 낮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대한 빈곤의 영향 및 그 과정을 설명한 박현선 외(2006)의 연구에서는 빈곤 상황에 있는 아동의 경우, 우울·불안, 주의집중, 비행, 공격성과 같은 사회·정서적 발달 정도가 비빈곤 아동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빈곤의 영향이 가족기능이나 성인역 아동부담을 통해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역시,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 아동의 우울성향의 차이를 분석한 민하영 외(2007)의 연구에서는 저소득 가정 아동의 우울 성향이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빈곤의 영향이 매개됨을 보고하였다. 또한 가족의 소득이나 부모의 학력과 같은 물질, 인적 자본이 아동의 우울에 미친 영향 및 과정을 분석한 김연희 외(2008)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물질, 인적 자본이 아동의 우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모-자녀 간 애착이나 아동에 대한 부모의 생활감독, 가족구조 등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나 지역 사회의 자본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반면, 구인희 외(2009)의 연구에서는 현재의 빈곤경험이 아동의 내재화된 행동문제인 우울·불안과 주의집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현화된 행동문제인 공격성 및 비행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오승환(2001)은 결손가족이나 소년소녀가정 청소년과 일반 가족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나 우울 등이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우울에서는 취약계층 청소년이 일반가족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빈곤과 아동발달에 대한 이상의 연구들은 대부분 종단적인 자료의 부재로 인해 빈곤의 시간적인 차원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한 빈곤여부에 따른 우울·불안이나 내재화된 행동문제에서 나타나는 차이만을 보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빈곤 변수의 측정에서도 공공부조 수급여부나 복지서비스 대상자 여부, 가족구조, 빈곤 스트레스, 소년소녀가정여부와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고 있어 실

제적인 빈곤의 영향을 분석했다고 하기에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은 실정이다(박현선, 2008).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시간적 차원에 따라 아동의 우울·불안정도에 대한 빈곤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청소년패널(Korea Youth Panel Survey) 초4패널 3개년 자료를 분석한다. 청소년패널조사의 초4패널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 중 대표성 있게 표집된 2844사례의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루어지는 종단적 조사이다. 청소년패널 초4패널은 2004년 4월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2004년 교육통계연보)들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아동이 초등학교 4학년인 1차 년도(2004년)에는 2844사례가 조사되었고, 2차 년도에는 96.2%인 2707사례가 조사되었으며, 3차 년도에는 95.3%인 2672사례가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패널 초4패널 조사의 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2. 주요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아동의 우울·불안이다. 청소년패널 초4패널은 1-3차년도 조사에서 매년 아동의 우울·불안에 대해 총 5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우울·불안은 1, 3차 년도에 각각 평균 10.99(표준편차 4.29), 10.98점(표준편차 4.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의 측정시점은 아동이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인 3차년도의 우울·불안이며, 1차 년도에 측정된 우울·불안변수는 초기치를 통제하는 모형에서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나는 모든 일에 격

정이 많은 편이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등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불안의 수준이 높은 것을 말한다.

<표 1> 변수의 정의와 기술 통계치

변수 (변수명)		변 수 정 의	평균 (표준편차)		
			초4패널		
			1	2	3
가족 소득	빈곤 여부 (%)	빈곤 여부 (육구소득비 1미만) 빈곤 여부(1, 2차년도 중 한 해라도)	6.55	6.41	5.94
	빈곤 기간 (%)	연속 빈곤 (3년 이상의 장기 빈곤) 일시적 빈곤 (2년 또는 1년만 빈곤) 비빈곤		1.5	
	빈곤 시기	1차년 빈곤 3차년 빈곤 1,3차년 모두 빈곤 비빈곤		10.7	87.8
애착		2, 3차 년도의 부모와 아동의 애착 정도 6문항의 합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 $\alpha=.82$)		22.07	
생활감독		2, 3차 년도의 부모의 감독 정도 4문항의 합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 $\alpha=.84$)		16.22	
가정폭력		2, 3차 년도의 부부 및 부모-자녀 간 갈등 정도 4문항의 평균 (매우 그렇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 $\alpha=.78$)		14.26	
우울 불안		아동의 우울·불안 정도 5문항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1차년 $\alpha=.77$, 3차년 $\alpha=.83$)	10.99 (4.29)		11.44 (4.28)
부모 교육수준 (%)		대학(전문대 포함)입학이상 (고졸 이하 = 0)		69.0	
가족 구조 (%)		한 부모 부모 모두 같이 생존(거주)		3.8	
아동 성 (%)		여성=1, 남성=0		96.2	
형제순서		아동의 형제 순서 만이 여부 (만이 아님=0)		46.0	
				47.0	

또한 독립변수인 가족빈곤은 빈곤여부, 빈곤기간, 빈곤시점 등 크게 세 가지로 구

분된다. 구체적으로 빈곤 여부는 1차년도와 2차년도 중 한 해라도 빈곤한 경우를 빈곤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빈곤의 산출은 각 년도 월평균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로 나누어 산출한 욕구소득비에 기초하여 산출하였다. 따라서 1-2차년도 가구의 욕구소득비가 한 해라도 1미만일 경우, 빈곤으로, 1이상일 경우에는 비빈곤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빈곤기간은 장기적인 연속빈곤의 경우, 아동의 초등학교 4학년 시기(04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 시기(06년)에 이르는 3년 중에서 3년 연속, 장기적으로 빈곤할 경우, 연속 빈곤으로 정의하였으며, 일시적인 단기 빈곤은 1-2년 이하의 빈곤을 일시적인 빈곤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빈곤의 시기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빈곤과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빈곤을 비교하기 위해 4, 6학년 시기의 빈곤 여부와 4, 6학년 모두 빈곤한 경우, 그리고 한 해도 빈곤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기초분석 결과, 1-2차 년도 중 한 해라도 빈곤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10.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연속 빈곤한 가구는 1.5%, 일시적 빈곤을 경험한 가구는 10.7%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의 시기별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정의된 빈곤의 시점은 1차년도 빈곤한 가족이 4.5%, 3차년도 빈곤한 가족이 2.3%, 그리고 1, 3차 년도에 모두 빈곤한 가족이 2.3%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부모-자녀 간 애착과 부모의 아동생활감독, 그리고 가정폭력 정도이다. 이 변수들은 모두 2, 3차 년도에 측정된 값을 평균하여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부모-자녀 간 애착은 부모와 아동의 애착정도를 공유시간, 애정표현, 상호 이해, 대화 등 6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합하여 사용하였다(평균 22.07점, $\alpha=.73$). 둘째, 부모의 감독은 아동이 외출했을 때, 아동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언제 돌아올 것인지 등에 대해 부모가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총 4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합하여 사용하였다(평균 16.22점, $\alpha=.96$).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은 아동이 보고한 부부간 욕설이나 구타의 정도 2문항과 부모에 의해서 행해지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 2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 4문항을 합하여 사용하였다. 가정폭력 변수 역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역점수화하여 사용하였다(평균 14.26점, $\alpha=.89$). 또한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는 아동발달과 주요하게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가족구조,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규모, 형제 순서(만

이 여부), 아동의 성별, 학교 등급 등이 포함된다(McLanahan, 1985; Duncan and Brooks-Gunn, 1997; McLoyd, 1998; 김광혁, 2006a)²⁾. 가족구조는 한 부모와 부와 모 모두 존재하는 가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한 부모 가족구조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은 모의 교육 수준을 기초로 하였으며, 모의 교육수준에 대한 응답이 결측되었을 경우(모 부재가구), 부의 교육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부모의 학력이 대입 이상인 가구는 69.0%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은 여성이 46.0%, 남성이 54.0%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양육행동의 영향을 받는 형제순서는 만 이인 경우가 47.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중 전화 조사를 통한 부모 조사를 통해 정보를 얻은 변수는 가족구조와 부모학력, 가족소득, 형제순서 등의 변수이며, 아동을 통한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우울불안, 부모자녀 애착, 생활감독, 가정폭력, 아동성별 등의 변수이다.

3. 분석방법 및 모형

본 연구는 SPSS 15.0을 이용한 OLS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문제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1-4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 방법은 우울·불안을 가족빈곤변수와 시간적 차원이 고려된 가족 빈곤 변수 등에 회귀시키는 모형이 사용된다. 구체적인 분석 모형은 가족 구조 변수와 부모 교육수준, 아동성별, 형제순서 등 통제변수와 1-2차년도의 빈곤 여부 변수만 포함된 모형(모형 1)과 소득계층별 소득의 영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구성된 4단위의 욕구소득비의 영향 비교 모형(모형 2), 빈곤 지속기간 변수가 포함된 모형(모형 3), 빈곤의 시점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모형4), 1차년도 이전, 우울·불안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제외하기 위해 모형 1에 1차년도 시기의 우울·불안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한 모형(모형 5), 그리고 과정변수들이 추가된 모형(모형6)을 분석한다. 이 밖에 모든 매개변수가 동시에 포함된 모형 6을 각 매개변수들을 개

2)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우울불안과 같은 내재화된 행동문제에 한 부모 가족구조, 부모의 학력 수준, 아동의 성별, 그리고 형제 순서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은 부모 가족 아동에 비해, 부모 학력이 높은 가족의 아동에 비해 는 가족의 아동 일수록, 여성 아동일수록 남성아동에 비해, 그리고 형제 순서가 첫째 아동에 비해 둘째 또는 셋째 아동일수록 아동 발달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Brooks-Gunn and Duncan, 1997; McLoyd, 1998; Bradley and Corwyn, 2002).

별적으로 포함한 모형으로 나누어 개별 매개변수들의 독립적인 매개적 영향을 분석한다.

IV. 분석결과

〈표 2〉는 3차년도(초6 시기) 아동의 우울·불안 수준을 종속변수로 한 모두 6개 모형의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주요변수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1에서는 부모교육수준이나 가족구조 등의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1-2차년도 빈곤 여부 변수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 빈곤을 경험한 가정의 아동은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가정의 아동에 비해 우울·불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비빈곤 가정의 아동에 비해 빈곤가정 아동의 우울·불안이 .919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아동의 우울·불안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이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4단위로 범주화된 욕구소득비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욕구소득비 2에서 3사이의 구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족소득의 영향은 다른 소득계층보다는 절대 빈곤층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욕구소득비가 1-2사이인 계층과 3 이상인 계층의 우울·불안 수준은 욕구소득비가 2에서 3사이의 소득집단인 기준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욕구소득비가 1미만인 소득집단의 우울·불안은 기준집단에 비해 아동의 우울·불안 정도가 약 0.963점 높게 나타났다. 즉, 모형 2에서는 욕구소득비 1미만의 절대 빈곤에 처한 가구의 아동들에게만 빈곤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형 3에서는 비빈곤 가족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의 연속 빈곤과 1년 또는 2년 이하의 일시적 빈곤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 3년 연속, 장기적으로 빈곤을 경험한 가정의 아동은 빈곤을 한 해도 경험하지 않은 가정의 아동에 비해 우울·불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41점). 반면, 일시적인 빈곤을 경험한 가정의 아동은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우울·불안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모형 4는 아동의 발달시기 중에 빈곤을 경험한 시기를 초기(초4) 빈곤과 후기(초6) 빈곤, 초기와 후기 모두 빈곤, 비빈곤으로 나누어 아동의 우울·불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2> 빈곤이 아동의 우울·불안에 미친 영향

	1	2	3	4	5	6
부모교육수준 대학입학 이상 (고졸 이하 기준)	.235 (.191)	.299 (.198)	.298 (.195)	.235 (.191)	.099 (.185)	-.168 (.183)
아동성별 (남성 기준)	.707*** (.173)	.680*** (.166)	.755*** (.176)	.737*** (.171)	.635*** (.168)	1.067*** (.170)
형제순서 (말이 아님 기준)	.077 (.173)	.009 (.166)	.044 (.176)	-.008 (.171)	.072 (.168)	.123 (.165)
가족구조 한 부모 여부 (양부모 기준)	.735 (.499)	.807 (.457)	.797 (.514)	.573 (.496)	.690 (.479)	.577 (.474)
빈곤여부 (비빈곤 기준)	.919** (.301)				.634* (.292)	.278 (.289)
육구소득비 육구소득비< 1		.963* (.477)				
1≤육구소득비< 2		.076 (.214)				
3≤육구소득비 (2≤육구소득비(3 기준)		-.062 (.209)				
빈곤지속기간 3년 연속 빈곤			1.641* (.746)			
2년 이하의 일시 빈곤 (비빈곤 기준)			.359 (.294)			
빈곤시점 1차년도				.726+ (.439)		
3차년도				-.570 (.471)		
1, 3차년도 (비빈곤 기준)				.623* (.293)		
부모자녀 애착						-.143*** (.026)
부모생활감독						-.217*** (.036)
가정폭력						.064+ (.033)
우울·불안 1차년도					.285*** (.020)	.238*** (.020)
상수	11.557*** (.206)	11.586*** (.231)	11.557*** (.206)	11.584*** (.204)	8.534*** (.290)	12.186*** (.716)
F	5.934***	3.881***	4.800***	4.702***	40.151***	42.031***
Adj. R ²	.010	.010	.010	.010	.089	.135
	2643	2643	2643	2643	2643	2375

+p<.10, *p<.05, **p<.01, ***p<.001

분석결과, 아동이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빈곤을 경험한 아동은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우울·불안이 한계적인 수준이지만 0.726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모형 4와 같은 분석은 3개년 자료를 활용한 본 연구의 한계로 인해 앞선 모형 3의 빈곤 기간에 따른 차이 분석과 차별성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개년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빈곤시점 간 차이 분석을 위해 〈부록 1〉과 같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록 1〉은 1차년도 빈곤(모형 1), 2차년도 빈곤(모형 2), 3차년도 빈곤(모형 3)이 각각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앞선 〈표 2〉의 모형 4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1차년도(.934)와 2차년도(.968)도 빈곤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차년도 빈곤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형 5에서는 아동의 우울·불안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보다 분명히 밝히기 위해 3차 년도에 조사된 우울·불안에 대한 1-2차 년도의 가족 빈곤의 영향을 분석한 모형 1에 1차년도의 우울·불안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3차년도의 우울·불안에 대한 가족빈곤의 영향은 1차년도의 우울·불안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먼저, 모형 5와 모형 1 사이의 R²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추론해 볼 수 있는데, 4학년 우울·불안 변수를 투입한 모형 5의 종속변수 설명량(.089)이 우울·불안 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모형 1(.010)에 비해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 시기의 우울·불안이 6학년 시기의 우울·불안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4학년 시기에 우울·불안 정도가 높은(혹은 낮은) 아동일수록 6학년에 가셔도 역시 우울·불안의 정도가 높을(혹은 낮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형 5에서는 6학년 시기 아동의 우울·불안에 대한 강력한 예측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45학년 시기의 가족 빈곤이 6학년 시기의 우울·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통계적 방법을 통하여 6학년시기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되지 못한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함으로써 아동의 우울·불안에 대한 가족빈곤의 영향을 보다 분명히 밝혔다는 의미를 가진다. 모형 6에서는 앞선 모형에서 검증된 우울·불안에 대한 가족빈곤의 영향이 어떠한 변수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탐색적인 수준에서나마 분석하기 위해 부모-자녀 간 애착, 부모의 아동 생활감독, 가정폭력 등의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모형이

다. 분석결과, 부모-자녀 간 애착과 아동에 대한 부모의 생활감독 변수가 우울·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계적인 수준이지만 가정폭력 변수도 우울 불안을 높이는 변수로 나타났다. 반면, 앞선 모형에서 영향력이 검증되었던 빈곤 변수는 매개변수들을 모형에 포함하자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상실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탐색적인 수준이지만 가족빈곤이 부모-자녀 간 애착이나 부모의 생활 감독, 그리고 가정폭력과 같은 변수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매개변수의 영향은 본 연구에서 탐색적인 수준에서 OLS회귀분석을 통해 한 모형에 동시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상관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포괄적인 가족기능 변수들의 추정치를 과소추정하거나 오류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변수의 경우, 아동의 우울·불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 방법상의 한계로 인해 한계적인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모-자녀 간 애착, 부모생활감독, 가정폭력 등 매개변수들을 동시에 투입한 모형과 독립적으로 하나씩 투입한 모형을 분석하였다(〈표 3〉). 분석결과, 부모-자녀 간 애착변수와 부모의 아동에 대한 생활감독 변수는 동시투입 모형의 결과가 개별 투입 모형에서도 재확인되었고, 동시투입모형에서 한계적인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가정폭력 변수의 경우, 보다 유의한 통계적인 관련성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 변수의 경우, 다른 매개변수인 부모-자녀 간 애착변수 또는 부모의 생활감독변수와 상호작용 또는 관련성 속에서 아동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 매개변수의 효과 비교

	모형 6 (동시투입)	모형 6 (개별투입)
부모자녀애착	-.143*** (.026)	-.250*** (.022)
부모생활감독	-.217*** (.036)	-.236*** (.028)
가정폭력	.064+ (.033)	.359*** (.036)

+p<.10, ***p<.001

이 밖에 통제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아동 성별의 경우, 여성 아동일수록 남성 아동에 비해 우울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부모의 학력과 형제순서, 가족구조 등은 아동의 우울·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 이상 또는 고졸 이하로 구분한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의 아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울·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또한 한 부모 가족 여부로 측정한 가족구조 역시, 아동의 우울 불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서구의 선행연구와 다소 다른 결과이다. 서구의 이 분야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있어서는 가족소득이나 빈곤보다 가족구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McLanahan, 1997). 이러한 결과는 우선 분석 자료의 태생적인 한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한 부모 가족의 절대적인 수가 적어서 그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서구의 연구 결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한 부모 가족구조가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분석결과의 추정치가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한 부모 가족일수록 양친부모 가족에 비해 우울·불안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고려했을 때, 사례수가 적어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후속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 초4패널조사 3개년 자료(1-3차년)를 활용하여 빈곤이 아동의 우울·불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빈곤 여부에 따른 우울·불안의 차이를 비롯해 빈곤의 기간에 따른 차이나 빈곤을 경험한 시점에 따른 차이, 그리고 우울·불안에 대한 소득의 비선형적인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소득계층 간 영향의 차이 등을 분석하였으며, 더불어 탐색적인 수준이지만 부모-자녀 간 애착이나 부모의 생활감독, 가정폭력 변수 등의 매개효과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정리하면 첫째, 연구문제 1-1의 분석결과, 빈곤 여부는 부모 학력, 아동의 성별,

형제순서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의 우울·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빈곤을 경험한 아동은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우울 불안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문제 1-2의 분석결과, 가족소득의 수준은 우울 불만에 소득계층별로 다른 영향, 즉 비선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불안과 가족소득 수준 간의 관계는 가족소득이 높아질수록 우울 불만이 줄어든다거나 가족소득의 낮을수록 우울 불만이 낮아진다는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라, 빈곤층에서만 소득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비선형적인 관계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우울·불안 정도가 다른 소득 계층 아동집단에 비해 빈곤층의 아동 집단에서만 유독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말하는 것으로 빈곤층 아동에 대한 사회·정서적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연구문제 2-1의 분석결과, 연속적인 장기빈곤을 경험한 아동일수록 일시적인 단기 빈곤 또는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우울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의 연구 결과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단기적인 빈곤보다 장기적인 빈곤이 아동의 발달에 상대적으로 보다 강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넷째, 연구문제 2-2의 분석결과, 빈곤이 우울·불안에 미친 영향은 현재빈곤보다는 과거(1차년도)빈곤이 보다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발달의 특성 상 발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초기 아동기의 빈곤 경험이 후기 아동기의 빈곤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서구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결과는 과거와 현재 시점에 모두 빈곤을 경험한 아동의 우울 불만이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했을 때, 빈곤의 시점보다는 앞서 연구문제 2-1에서 검증한 연속빈곤의 영향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즉 빈곤의 시점에 따른 차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빈곤의 영향이 시점에 따른 차이로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연구문제 3의 분석결과, 우울·불안의 초기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현재 아동의 우울·불안에 대한 빈곤의 영향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우울 불만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통제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이전 시점의 관찰 또는 관찰되지 않은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빈곤의 영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아동의 우울·불안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보다 명확히 밝힌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단기적인 빈곤에 비해 장기적인 빈곤을 경험한 아동의 경우, 내재화된 행동문제, 즉 우울불안과

같은 문제가 심화되어 나타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Duncan et al, 1994; MaLeod et al, 1993; Pagani et al, 1997). 즉 횡단적인 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경우, 일시적인 빈곤이나 현재 빈곤이 우울불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종단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의 기간을 고려했을 경우,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서구의 선행연구와 국내의 일부 선행연구에서 내재화된 행동문제에 대한 빈곤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한 바 있으나 이 연구들은 대부분 빈곤의 시간적인 차원을 고려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서구의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의 경우, 가족빈곤보다는 가족구조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다거나 빈곤이 가족구조와 연과되어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즉 가족구조의 영향은 거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장기적인 빈곤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구조, 즉 한 부모 가족구조가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족은 대부분 모와 아동이 거주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부와 거주하는 경우보다 모와 거주하는 경우, 아동양육이나 자녀와의 관계가 더 긍정적인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광혁, 2006b)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추론은 타당성이 있다 하겠다. 또 다른 가능한 추론으로는 한 부모 가족 사례가 적어 나타나는 통계적 오류의 가능성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에서는 한 부모 가족의 사례가 부모 가구에 비해 적어 통계적 오류가 결과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연구문제 4의 분석결과, 아동의 우울불안에 대한 빈곤의 영향은 부모-자녀 간 애착, 아동에 대한 부모의 생활감독, 그리고 가정폭력 변수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상의 매개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자 우울불안에 대한 빈곤 변수의 통계적 영향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나타나 탐색적인 수준이지만 이상의 매개변수들의 매개적 영향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 역시, 가족과정모델에 기초하여 매개변수의 작용을 검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김광혁, 2006a; 2008a; 2008b; Conger, Conger, and Elder, 1997; Linver, Brooks-Gunn and Kohen, 2002).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인 1개 년도의 자료를 분석한 이 분야 대다수의 기존 연구와 달리, 종단적인 패널자료를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빈곤 여부의 영향에 대한 검증의 수준을 넘어, 빈곤을 경험한 기간이나 빈곤 경험의 시점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빈곤과 우울·불안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속적인 장기 빈곤을 경험한 아동의 경우, 그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되어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가 배가되는 모습을 보여 지속적인 장기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본 연구는 역시, 종단적인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의 우울·불안의 초기치를 통제함으로써 조사(측정)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되는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주로 이루어진 특정한 시점에서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가 동시에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는 횡단연구의 경우, 인과관계의 검증에 있어 핵심적 조건의 하나라 할 수 있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보다 선행한 사건이었다는 부분을 명확히 밝히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김광혁, 2008a).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3개년 간 조사된 종단적인 패널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적인 관계를 보다 분명히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소득과 우울·불안 간의 비선형적인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가족소득의 수준이 아동의 우울·불안에 미친 영향이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다른 계층에 비해 절대빈곤층에서 소득의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 또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가족 빈곤의 영향이 부모-자녀 간 애착이나 부모의 생활감독, 그리고 가정폭력과 같은 가족기능에 의해서 매개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빈곤 가족과 아동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지점을 다양화 하는데 기초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빈곤아동의 발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빈곤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이나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과 같은 가족에 대한 비물질적인 지원, 즉 복지서비스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함으로 보여주었다(김광혁, 2006a; 2008a; 2008b).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 초4패널을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초등학교 시기 아동발달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검증하였으나 서구의 선행연구들은 아동발달에 대한 빈곤의 영향은 학령기 이전에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학령기 이전의 아동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후속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빈곤이 아동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즉 매개변수의 영향을 위계적인 변수 투입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OLS 회귀모형을 이용한 위계적인 변수 투입방법은 사회과학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경로 및 매개효과를 검증했다고 말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경로분석이나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3개년 동안 추적 조사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의 시간적 차원을 고려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3개년은 빈곤의 장기적인 영향이나 시점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에 비교적 짧은 시기로 분석결과의 해석에 제한을 가져온다. 즉 본 연구는 비교적 짧은 조사자료의 한계로 인해 빈곤 기간의 차이와 시점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내지 못하는 한계라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으로 축적된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후속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인회·박현선·정익중(2006). 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연구, 제10권 제3호, pp.269-295
- 구인회·박현선·정익중·김광혁(2009).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종단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1호, pp.57-79
- 김광혁(2006a). 아동기 빈곤이 학구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 - 빈곤의 시기와 기간, 정도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1권, pp.195-217.
- 김광혁(2006b). 가족배경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 - 빈곤과 가족소득, 가족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제45호, pp. 53-74.
- 김광혁(2008a). 경제적 결핍과 구조적 결손, 이웃환경이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제3호, pp.115-138
- 김광혁(2008b). 가족소득의 변화가 아동의 학업성취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김연희·김선숙(2008). 사회자본이 아동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제36권, 봄, pp.103-127
- 김정미·곽금주(2007). 취학 전 빈곤아동에 대한 부모, 가정환경 자극, 사회적 지원의 영향력 탐색. 아동학회지, 제28권 제4호, pp.305-317
- 민하영·김경화(2007).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한 부모간 갈등과 양육행동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제6호, pp.33-41
- 박현선(2008). 빈곤지위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빈곤대리변수와 빈곤 동반 위험요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26권, pp.113-137
- 박현선·정익중·구인회(2006). 빈곤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간의 관계-성인역 부담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2호, pp.303-330
- 오경자·이혜련·임양화(1991).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문제 특성. 소아정신건강, 12월(3)
- 오승환(2001).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복지연구, 제16권 제1호, pp.117-141
- 윤혜미(2005). 경제적 곤란과 가족갈등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3

- 호, pp.133-164
- 이봉주(2006). 인적자본과 불평등,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 이재연·백정재(1997).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생활과학연구지, 제12권 제1호, pp.71-93
- 최영희·박영애·박인전(2002).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과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0권 제2호, pp.203-214
- Aneshensel, C. and C. Sucoff.(1996). The neighborhood context of adolescent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37, pp.943-964
- Aronen, E. and M. Soininen.(2000). Childhood depressive symptoms predict psychiatric problems in young adult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Vol. 45, pp.465-470
- Asarnow, J. R., and G. A. Carlson.(1985). The depression self-rating scale: Utility with child psychiatric inpati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54, pp.491-499
- Axinn W., Duncan G. J. and A. Thornton.(1997). The effect of parents' income, wealth, and attitudes on children's completed schooling and self-esteem, pp.518-540. in Duncan G. J. and J. Brooks-Gunn(ed).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Becker, G. S.(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ecker, G. S. and N. Tomes.(198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4 No. 3, S1-S39
- Bhatia, S. and S. Bhatia.(2007). Childhood and adolescent depression. *American Family Physician*, Vol. 75, pp.73-80
- Bradley, R. and R. Corwyn.(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3, pp.371-399
- Brooks-Gunn, J. and J. Duncan, Greg.(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Vol. 7 No. 2, pp.55-71
- Conger, R. D., K. J. Conger and G. Elder.(1997). Family economic hardship and

- adolescent adjustment: Mediating and moderating processes. pp.288-310. in
G. J. Duncan and J. Brooks-Gunn(ed).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onger, R.D., and Donnellan, M.B., (2007) An interactionist perspective on the
socioeconomic context of human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8, pp.175-199
- Duncan, G. and J. Brooks-Gunn.(1997).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Duncan, Greg J., J. Brooks-Gunn, and P. K. Klebanov.(1994). Economic deprivation
and early-childhoo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Vol. 65 No. 2*,
pp.296-318
- Elder, Glen H., Jr., Tri Van Nguyen, and Avshalom Caspi.(1985). Linking family
hardship to children's lives. *Child Development*, *Vol. 56 No. 2*, pp.361-375
- Huston, A. C., McLoyd, V.C., and C. G. Garcia.(1994). Children and poverty:
Issues in contemporary research. *Child Development*, *Vol. 65*, pp.275-282
- Gershoff, E T., Lawrence, A. J., Cybele, R. C., and Lennon, M. C. (2007). Income is
not enough: Incorporating material hardship into models of income associations
with parent mediators and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Vol. 78*,
pp.70-95
- Kazdin, A. E., French, N. H., Unis, A. S., and K. Esveltd-Dawson.(1983). Hopelessness,
depression, and suicidal intent among psychiatrically disturbed inpatient.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51*, pp.504-510
- Korenman, S., Miller, J. E. and Sjaastad J. E.(1995). Long-term poverty and child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the NLS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 17(1/2)*, pp.127-155
- Linver M., J. Brooks-Gunn, and D. Kohen.(2002). Family processes as pathways
from income to young children's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8 No. 5, pp.719-734
- McLoyd, V.(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Vol. 53 No. 2*, pp.185-204

- McLanahan, S.(1997). Parent absence or poverty: Which matters more? pp.35-48.
in Duncan G. and J. Brooks-Gunn(ed).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Pagani, L .S., Boulerice, B., and R. E. Tremblay.(1997). The influence of poverty
on children's classroom placement and behavior problems. in Duncan, G.
J. and J. Brooks-Gunn(ed),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Yeung, W.J., M.R. Linver and J. Brooks-Gunn.(2002). How money matters for
young children's development: Parental investment and family processes.
Child development, Vol. 73, pp.1861-1879.

ABSTRACT

The Effect of Childhood Poverty on Depression and Anxiety : Focusing on the Duration, Timing and Extent of Poverty

Kim, Kwang-Hyuk*

This study assesses the effect on child's depression and anxiety of poverty taking account also of both duration and timing. The source of our data was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2004(Primary School 4). Our results indicate that duration and timing of poverty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depression and anxiety. More specifically, the longer the duration of poverty and the earlier in childhood that poverty occurs both negatively impact upon depression and anxiety. Moreover, it was found that extreme poverty negatively affects depression and anxiety.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social support for poor families contributes to helping resolve depression and anxiety. In particular, these support mechanisms should be focused on the duration of poverty, the early onset of childhood poverty, and the poverty experienced by extremely poor families.

Key Words : poverty, children, depression and anxiety, poverty time, duration of poverty, poverty extent.

투고일 : 8월 24일, 심사일 : 12월 7일, 심사완료일 : 12월 7일

* Jeon-Ju University

빈곤이 아동의 우울·불안에 미친 영향 : 빈곤의 기간 및 시기, 정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부록 1> 3개년의 빈곤 시기별 영향 비교

	1	2	3
부모교육수준 대학입학 이상 (고졸 이하 기준)	.227 (.185)	.260 (.189)	.376* (.187)
아동성별 (남성 기준)	.718*** (.168)	.675*** (.172)	.720*** (.170)
형제순서 (말이 아님 기준)	.003 (.168)	.088 (.172)	.001 (.170)
가족구조 한 부모 여부 (양부모 기준)	.559 (.477)	.992 (.475)	.712 (.469)
빈곤시점 1차년도	.934** (.358)		
2차년도		.968** (.358)	
3차년도 (모두 비빈곤 기준)			.215 (.369)
상수	11,567*** (.200)	11,538*** (.204)	11,589*** (.202)
F	5.939***	5.743***	4.969***
Adj. R ²	.009	.009	.008
	2643	2643	2643

*p<.05, **p<.01, ***p<.001

